

# 하나님은 고통을 모르는 쾌락과 즐거움의 신

##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증거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증거, 이거는 죽기 싫어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충분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이였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쾌락의 신이요, 하나님은 고통을 모르는 신인 것이옵시다.

사람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마귀에게 포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옵시다. 그런고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희열을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걸 보아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이옵시다.

사람마다 고통과 고통을 좋아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고통과 괴로움을 싫어하죠? 이제그대로 사람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오늘날 이 마귀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그 영이 낙원에 간다, 천당 간다고 속여가지고 전부 죽이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그대로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살리고 있어요? 죽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영혼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짜 종교들이 역사가 오래됐다고 전통적인 종교라고 하는데, 진리의 종교가 아닌 가짜 종교들이 이제그대로 영혼이 뭔지, 신이 뭔지 생명이 뭔 줄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생명 자체가 영이요, 영 자체가 생명인고로 하나님이 곧 생명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요, 생명 자체가 이제그대로 하나님이면서 생명 자체가 영인 것이옵시다.

## 영혼이란?

사람이 죽을 때에 생명이 죽어서 죽는 거예요? 이제그대로 사람이 죽을 때에 생명이 안 죽고 몸만 죽는 고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죽는 고로 몸이 죽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영이 뭔지

이제그대로 오늘날 신이 뭔지 모르는 그 단체가 그제 종교 단체야, 마귀 단체야? 마귀 단체예요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요, 생명이 사람의 영혼인 것이옵시다. 이제그대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잠언서 4장 23절에 쓰여 있는가 하면 "생명이 피요, 피가 생명"이라는 말씀이 레위기서 17장 11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레위기서에는 "피가 생명"이라고 구구절절이 많이 쓰여 있어요.

성경을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마는 "생명이 피요, 피가 생명이요, 생명이 영"이라고 이제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아도 분명히 생명이 영인고로 그런고로 이제그대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다는 말은 이젠 영의 정의를 아는 사람의 말이야, 무식한 사람의 말이야? 무식한 사람의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그대로 영육 분리설을 논하는 그러한 종교단체는 그제 마귀 단체야, 종교 단체야? 마귀단체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혼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성경과 불경을 아는 고로 그제, 무식한 고로 그제? 무식한 고로 그제? 그래서 생명이 피라면 생명이 영이라면 생명이 피요, 생명이 마음인고로 마음이 피가 되는 고로 그런고로 피가 살이 되는 고로 몸 자체가 영이요, 영 아니야? 몸 자체가 영이예요.

## 이 세상 만물이신

그런고로 몸 자체가 영이라는 자체를 모르면서 성경을 논하고 그 경을 운운한다면, 그것은 참말로 우순한 사람들이야, 이제그대로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참말로 무식한 사람들이야?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영 자체가 생명이요, 생명 자체가 피요, 피 자체가 몸이요, 사람의 몸 자체가 영인고로 그런고로 이 세상 만물도 다 신이요, 신 아니야? 이 세상



구세주 조희성님

만물도 다 신이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이 따로 있고 물질이 따로 있다고 말 하는 사람은 그 경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불경에 이제그대로 사람더러 부처님이라고 했고 이 세상 만물이 다 부처라고 쓰여 있어요. 부처가 신이요, 신 아니야? 신이요? 이 세상 만물이 부처님이라면 이 세상 만물이 신이란 말이야, 물질이란 말이야? 신이란 말이요?

그러면서도 오늘날 그 경속에는 분명히 이 세상 만물이 부처님이고, 이 세상 만물이 신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을 불교에서 믿어, 이제그대로 부처님이 따로

있는 걸로 믿어? 따로 있는 걸로 믿고 있죠? 그들이 왜 그렇게 잘못 말을 하고 잘못 생각을 하나냐면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마귀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악마의 영인고로,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로 그런고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로 마귀가 마귀 소릴 하는 거야, 마귀가 하나님 소릴 하는 거야? 마귀 소리는 거죠?

## 음양은 마귀의 성품

그런고로 마귀의 성품은 어떤 것이 마귀의 성품이냐면 이제그대로 마귀는 음양의 성품이 마귀의 기본 성품이예요. 아

시겠어요? 음양의 성품이 마귀의 성품인고로 그런고로 주역에 무극에서 태극으로 변했다고 쓰여 있어요 태극으로 변한다는 것은 음양을 말해서 태극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 고서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음양의 법칙을 가지고 논하면서 사주팔자 풀이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그대로 태극 경지에서 무극 경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맞을까, 안 맞을까? 맞질 않아요. 태극 경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음양의 법칙의 철학을 가지고 풀이하면 그게 맞게 돼 있지만 그러나 태극 경지에서, 음양의 경지에서 무극 경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자, 여자 이것이 마귀의 형상이예요. 남자 여자의 형상을 벗어나야 돼, 안 벗어나야 돼? 성경이나 불경에는 "그 세계는 시집 가고 장가가지 않는 세계다." 그 세계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남자, 여자가 없는 고로 시집 장가를 갈 수 없고, 또한 "고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성경이나 불경에도 쓰여 있는 고로 그런고로 이제그대로 고자가 남자야, 여자야? 남자가 아니고 여자고 아니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옛날 이제 조선 당시에 궁궐에서 이제그대로 고자들 등용을 해서 쓴 것은 궁궐 안에는 궁녀들이 많이 있는 고로 그 궁녀들과 연애 걸까봐 왕이 고자들만 골라가지고 궁궐에서 시중을 들게하고 이제그대로 왕을 받드는 일을 했어, 안 했어? 궁녀들과 연애 걸까봐 고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왕이 하는 일을 시중들게끔 고자를 시켰던 것이옵시다.

## 남자는 남자의 성품을, 여자는 여자의 성품을 버려야

이것은 뭐냐면 이제그대로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면 궁궐이라는 건 영적으로 하늘나라 천당과 같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천당은 고자라야 가는 곳이야. 아시겠어요? 천당은 남자나 여자는 못 가! 아시겠어요? 남성이나 여성은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는 고로 그런고로 옛날 전도관 때는 눈길로나 마음 길로나 입술로나 음란죄를 지으면 내쫓았어, 안 내쫓았어? 내쫓았어. 음란죄를 짓지 못하게 이제그대로 마음 길로나 입술로나 눈길로나 죄를 짓지 못하게 했어, 안 했어? 했던 거죠?

이제그대로 마음으로 음란죄를 저도 피가 썩어서 죽게 돼 있는 고로 그런고로 마음으로 여자가 남자를 남자라고 의식하는 것도 음란죄야, 음란죄 아니야? 음란죄야. 아시겠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이 사람은 여자라고 의식을 하면 그게 음란죄야, 음란죄 아니야? 음란죄요? 이제그대로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라고 의식할 수가 없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남자라고 의식할 수 없는 경지에 올라야 무극 경지에 오른 거예요.

태극 경지의 탈을 벗어나려면 이제그대로 완전히 남자는 남자의 성품이 없어져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성품이 없어져야 되는 고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까, 상당 기간 동안 노력을 해야 이루어질까?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정욕이 올라오는 데 따라서 이제그대로 음란죄를 마음으로 짓는다면 행동으로 음란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있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어요.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음란죄를 지려야 질 수가 없는 경지에 올라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뵈다가 되고 이긴자가 됐다가 되고 구세주가 되는 것이옵시다.\*

1992년 8월 31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헌욱 기자

## [ 연재 ]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지난호에 이어서) 요셉은 또 어느 날 그보다도 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별 열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는 꿈이었습니다.

다음날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더니, 이번에는 그 아버지 야곱 까지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오 녀석, 요셉아! 너 그 바보 같은 생각도 분수가 있지, 도대체 그래, 너는 아버지랑 암마랑 형제들이 모두들 네게 머리를 숙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말이냐? 그래 그따위 일이 어디 있던 말이나?”

물론 요셉으로서의 꿈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꿈을 꾸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꾸었다는 꿈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낳은 자식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는 지난번에 요셉이 유다와 아들람 성읍의 처녀 사이의 통간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친 일로 매우 성질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꿈 이야기로 자신들의 왕이 되고자 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레아의 자식들

속에 시기심과 질투하는 마귀를 잔뜩 심어놓았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스불론의 아내들이 친정 부모님이 그리워서 그들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세겜 성읍에 사는 친정 부모님이 편안하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남편들이 순순히 응대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세겜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니, 양떼를 몰고 들로 나갈 때 세겜 성읍까지 갔다가 오겠소”

헤브론 마브레에서 세겜까지 약 80킬로미터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하루 만에 다녀오기란 무리였습니다. 밤이 이슬하도록 레아의 다섯 아들과 여종 실바의 세 아들 그리고 레아에 속한 종들이 마브레 천막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자, 아버지 야곱이 무척 걱정하였습니다.

총명한 요셉이 형수들을 추궁한 끝에 형들이 세겜으로 간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부탁하였습니다.

“형들을 찾아오고자 하니, 저를 보내주세요”

야곱은 요셉을 대견하게 생각하였습

## 《3장 야곱의 하나님》

# (12) 첩 레아의 자식들이 요셉을 핍박함

니다. “네가 정말 그 먼 길을 가겠다고 이번 일로 형들과 사이 좋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네 동생 베나민은 어리니까 집에 남도록 하고 단과 납달리와 동행하도록 하라. 또 라헬에 속한 종들이 함께 할 것이니라. 잠자기 전에 미리 양식과 낙타를 준비해놓았다가 내일 아침 동트기 전에 서둘러 출발하여라.”

## (12) 첩 레아의 자식들이 요셉을 핍박함

한 천사가 세겜의 들판에서 요셉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가까이 다가오자 천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은 세겜 들판에 배회하던 낯선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인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습니다. 그 낯선 사람에게 요셉은 말하였습니다.

“나의 형들을 찾습니다.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 떼를 치고 있는지 아시면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찾고자 하는 형들은 여기서 북

쪽 20킬로미터쯤에 있는 도단으로 올라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어제저녁 해질 무렵에 요셉이 찾는 형들을 만나 “세겜 성읍에 살던 히위 족속들이 그곳을 저주의 땅으로 여기고 세겜을 떠나 도단으로 이주하였느니라.” 하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히위 족속들이 세겜을 ‘저주의 땅’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일 년 전에 레아의 자식들에 의해서 그들의 통치자였던 하물의 일족이 몰살당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 창세기 37장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향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A stranger found him blundering about in the fields. “What are you looking for?” asked the stranger.

16절: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니, 청컨대 그들의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소서.”

“I'm looking for my brothers,” replied [Joseph]. “Perhaps you can tell me where they are tending the sheep.”

17절: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

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They already left this area,” said the man.

“I heard them planning to go to Dothan.”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Joseph went after his brothers and found them in Dothan.

요셉과 함께한 일행이 도단에 이르자, 요셉이 단과 납달리에게 제의하였습니다.

“형님, 여기서 우리의 종들에게 낙타를 지키게 하고, 단 형은 서쪽을 살피고 납달리 형은 북쪽을 살피고 저는 동쪽을 살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형들을 한시바빠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여 요셉은 형들을 찾아 동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레아의 자식들 중에 유다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멀리서 알아보고 자신과 함께한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 들판에 배회하던 낯선 사람이 요셉에게 그의 형들이 간 곳을 알리다 (창37:17),

“저기 꿈쟁이가 옵니다. 저 녀석을 해치운 다음에 아무 구덩이에도 쳐넣고는 들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합니다. 요셉의 꿈대로 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자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동생 유다의 말에 동조하면서 “그래, 유다 너의 말이 맞아. 요셉이 우리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할 수는 없지. 이 녀석을 당장 요절내자구나!” 하고 살인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생일이 요셉보다 2개월 앞선 스불론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실바의 아들들 것과 아셀과 잇사갈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행이 되는 르우벤만이 반대대의사를 표했습니다.(다음호에 계속)\*

안젤라